

사천시, 글로벌 우주항공 거점으로... 부품기업 맞춤형 지원

공정·설비 효율화에 6억 투입
최대 7000만원 R&D 비용 보조
세라믹섬유·방위산업 부문 육성
품질 인증·해외판로 개척 지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사천시

사천시가 지역 우주항공 부품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한 복수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가능하다.

사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항공 부품 기업 공정·설비 효율화 지원이다. 시비 6억원을 투입해 공정 개선 10건, 설비 개선 5건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이 제공된다. 글로벌 OEM 시장 진입 기반 확보가 목표다.

같은 규모의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 우주항공산업 전략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시는 연구 개발 과제와 기술 컨설팅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당 최대 7000만원의 R&D 비용을 보조한다. 단순 하청 구조에 머물러 있는 지역 기업을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소재 분야에선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지원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며 시제품 제작부터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까지 전과

정을 포괄한다.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2023~2026년 총 60억원 규모의 경남형 방산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 개발·판로 개척·인력 지원을 묶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며 '방산혁신기업 100' 지정 등 국가 단위 사업 참여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품질 인증 지원도 병행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주관의 우주항공 부품 품질 향상 지원 사업과 우주항공 산업협회 주관의 품질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KOLAS 인증 및 AS9100 등 항공우주 필수 품질 인증 취득·갱신 비용을 보조한다.

해외 판로 개척 지원도 이뤄진다.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는 시비 3억원으로 고객 매칭, 계약서 검토, 통·번역, 해외 출장 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3월까지 참여업체 선정을 마친 뒤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VERTICON·에어로몬트리올·파리에어쇼 등 국제 행사 참가도 지원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기업맞춤형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통영시 제조 중소기업, 강소기업 만든다

통영시가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2026년 통영시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가운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다. 시는 시비 100%인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기술 혁신, 제품 생산, 판로 개척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울진군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도입

울진군은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과 변경,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IPSS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허가 지원 플랫폼으로, 신청과 변경, 준공 신청뿐 아니라 상담과 사전심의 기능도 제공한다. 민원 처리 현황 조회와 각종 증명서 출력도 가능하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하동군

"생활공구 무료로 빌려드려요"

하동군이 귀농 귀촌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군은 4월 1일부터 귀농 귀촌지원센터 1층에 '똑딱똑딱 생활공구 대여소'를 열고 용접기, 원형톱, 전동 대패 등 전문 작업용 공구부터 일상 소공구까지 총 50여 가지를 무료로 빌려준다.

대여소는 기존 창고 공간을 리모델링해 공구 진열대와 정비 작업대를 갖췄으며 안전 수칙 안내판과 소화기도 비치했다. 공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함평군

KTX 호남선, 함평역 임시정차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관광객들이 축제 기간 중 KTX를 타고 함평에 방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함평군은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KTX 호남선 일부 열차가 함평역에 임시 정차한다.

임시 정차는 축제 기간 중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5월 1일부터 5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하루 4회(하행 2회, 상행 2회) 정차한다. 해당 열차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축제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경북통합 모펀드' 1250억 결성

중기부 지역성장펀드 공모 선정
오는 9월 예정... 글로벌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성장펀드(초광역형)' 공모에 '대구경북통합 모펀드'가 최종 선정됐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 모펀드'의 결성 목표액은 1250억원으로 중기부 모펀드가 750억원, 대구시가 78억원, 경북도가 55억원을 각각 출자하게 된다.

대구에서는 iM뱅크, IBK기업은행, 이수퍼타시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경북에서는 구미시, 김천시, ㈜화신, NH농협 등이 출자 의향을 밝혔다.

이 펀드는 오는 9월 모펀드(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로 결성되며 한국벤처투자자가 운용한다. 이후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자펀드의 수, 규모, 주목적 투자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자펀드는 올 하반기 모펀드를 기반으로 내년까지 12개 내외,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구경북통합모펀드가 최대 70%까지 출자하고 나머지는 운용에 참여할 AC(엑셀러레이터 캐피탈), VC(벤처 캐피탈) 등이 출자한다.

경북도는 2024년부터 1조원 규모의 펀드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1011억원 결성(자펀드 201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형펀드 공모에 선정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순 자금 투자를 넘어, 피투자기업이 지역 내에 안착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후속 지원에 나선다.

이번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경북도는 포항, 경산, 구미로 이어지는 '경북 G-스타 벨리' 거점도시와 연계해 전주기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군 단체장과 6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 2.5조 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

AI 데이터센터·2차전지 등

충남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2곳을 추가로 유치하며 AI 산업 전환을 이끄는 기반을 확대한다. 반도체·2차전지·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도 잇따르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등 3개 시·군 단체장과 6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아산·논산·예산 산업단지 일원 26만3854㎡ 부지에 2030년까지 총 2조5547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이

전한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1065명 규모다.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디앤알파트너스는 아산 음봉 일원에 1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29년 3월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명을 채용한다. 말타니 역시 80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며 8500억원을 투자하고 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엑스알비는 아산 배방 스마트복합그린산단에 2차전지 및 배터리를 생산할 시설을 이전하며 1000억원을 투자, 200명을 채용한다. 소디스는 AI 자율주행버스 생산시설을 같은 산업 단지로 이전해 450억원을 투자하고 150명을 고용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해남군, 수산물 유통·가공 경쟁력 강화

19개 핵심사업에 106억 투입

해남군이 지역 수산물의 유통·가공 분야 19개 핵심사업에 대해 106억여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 향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생산 중심의 어업 구조를 가공과 유통 중심으로 전환해 해남 수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송지면 송호리에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가 건립된다. 부지면적 7669㎡, 연면적 1338.58㎡ 규모의 수산물 물류 유통센터는 냉동·냉장시설, 수조 등을 갖추고 활전복 수집과 보관, 판매, 분산 등의 기능을 갖춘 기반시설로 조성된다. 총 29억원(도비 14억5000만원, 군비 8억 7000만원, 자부담 5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 올해 말 준공에



해남군 전복선별 작업장. /해남군

정이다.

전문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유통 단계 축소로, 어민 소득향상과 더불어 소비자가 신선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물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울산시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공공시설 45개소, 프로그램 운영

울산시는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맞춰 지역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 45개소에서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울산도서관에서는 '수요 인문학 아

카데미'를 운영해 인문학적 성찰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한다. 4월1일 오후 7시 더클래식이음 서아름 대표가 진행하는 '영화 속 클래식'에서는 영화 명장면의 클래식 음악과 작곡가와 배경 지식 탐구하는 강좌를 마련한다.

울산박물관은 '퇴근 휴(休), 박물관'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과 6시 30분에 진행되는 '싱잉볼, 수요일의 박물관 치유(뮤지엄 힐링)'에서는 바쁜 일상 속 걸음을 늦추고 내면의 평온과 회복을 경험하는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